

재래닭 연구에 혼신, 양계산업에 큰 업적



▲ 한성욱 명예교수

- 1961. 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농학사
- 197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 1976. 9~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부교수·교수
- 1988. 재래닭보존연구회 발족
- 1991~2003 분회 김정위원회 위원
- 1994. 5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 1993. 9 한국가금학회 회장
- 1996. 1 한국축산학회 회장
- 1996. 1 한국축산분야학회 협의회장

전국의 재래닭 수집을 시작으로 오랜기간의 연구 끝에 국내 재래닭 유전자원이 개발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국내 반평생을 가금분야에 매진한 학계·관련인들의 노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발의 공신 인물 중 하나로 지난 20년간 재래닭 연구로 국내 가금산업의 한 획을 그은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한성욱 명예교수를 찾아 그의 연구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금분야에 한 길

한성욱 교수(만 72세)는 농과대학에 선망을 갖고 1955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입학해 축산학도에 입문했다. 축산학과는 말 그대로 목가적인 농업분야로 수업 과정에서 실습분야가 많았다.

재학 당시 현재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이봉덕 교수의 부친이자 국내 처음으로 인공수정을 도입한 이용빈 교수를 통해 인공수정학을 배웠고, 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교내 실습장을 통해 살아있는 현장 그대로 실

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졸업 후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가축번식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축산학회, 세계가금학회 등 왕성한 학회활동을 하는 등 가금분야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연구분야에 열정을 쏟았다.

한편, 1990년대 초반부터는 본회 검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육용계, 산란계의 품종별 생존율 제중, 사료요구율, 생산지수를 비롯한 경제성까지 파악하는 등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

재래닭 연구, 20년 전부터 시작

한 교수는 1976년 충남대학교 교수로 들어오면서 논산에서 오랜 기간 혼열되지 않고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연산오계(천연기념물 265호)'를 접했다. 전통을 유지하는 이레진 사장을 만나 오골계에 대한 체계정립과 넓게는 국내 재래닭 개념을 분명히 확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기 시작했다.

당시 과학재단에서 2년간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초 자료를 정립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실험농장에서 부화를 시작으로 성계 사육까지 오골계의 형태, 난각색, 생리, 경제능력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1988년에는 서울대학교 오봉국 교수, 축산기술연구소 정선부 소장, 충남대학교 이봉덕 교수 등 가금전문인이 모여 '재래닭보존연구회(단장 오봉국)'를 구성했고, 국내 20~30명의 재래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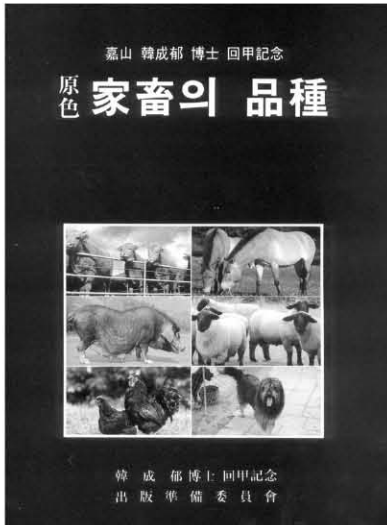
▲ 재래닭 연구 당시 학교 실험실내 오골계 등 재래닭 사육모습

회원 농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재래닭에 대한 기초자료는 당시 영국 과학재단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1989년 정보를 제공받아 기초자료를 정립하기도 했다.

1992년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다년간의 공으로 현재 축산과학원에서 재래닭 순계(PL)에 대한 유전자원을 보유하면서 그간 연구에 함께한 '재래닭보존연구회'의 값진 결실을 얻었다.

그 동안 기초자료가 없었던 오골계에 대해 오랜기간 연구 끝에 정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한 교수는 이 연구로 당해 세계축산학회에서 오골계 관련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래닭의 유전자원은 현재 축산과학원에서 유일하게 보유하면서 그 계통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들 유전자원을 꾸준히 유지,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 1996년 한성욱 교수가 원색으로 집편한 '가축의 품종'



▲ '가축의 품종'은 소, 돼지, 닭, 말, 양, 개 등 전 축종에 대해 품종별로 사진과 설명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전 세계적 재래닭 소비 부흥

이전에는 재래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개념 명확도가 불분명했던 지라 육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래닭의 소비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금류 사육이 전문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재래닭 전문농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최근 영국은 재래닭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방사 사육방식이 증가하고 있고, 대만 등 전 세계적인 추세가 육질과 맛이 좋은 재래닭에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재래닭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는 현실이다.

한교수는 “오랜기간 가금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 재래닭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에 일조했다.”며, “앞으로 재래닭을 비롯한 국내 가금육의 활발한 소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래닭과 토종닭의 용어 정리

재래닭과 토종닭을 같은 개념으로 자칫 착

각할 수 있다. 한 교수는 그간의 연구기간을 통해 용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내 지난 100년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1950년 6.25 사변으로 국내 재래순종(순계, PL)는 대부분 없어졌고 산업화되면서 개량종 생산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골계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이면서 잡종화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것을 재래닭이라 정리한다.

반면, 토종닭은 오랜 세월 교잡으로 유전적으로 체중이 크거나 특이한 모색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진 닭으로 지역적으로 특성을 갖게 된 닭을 정의한다고 말한다.

재래닭은 35일령 만에 출하체중에 도달하는 개량종(브로일러)과 비교했을 때 사료효율 등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문은 양방향으로 고르게 연구해야 할 분야이고, 현재는 재래닭의 고유성으로 값어치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큰 호응을 기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전한다.

(정리 | 장성영 기자)